신도시 주택공급 11만 가구 늘린다

송파·김포 등 6곳에서 … 향후 5년 내 55만 가구 쏟아져

부동산 안정화 방안

개발밀도 상향조정이 가능한 송파, 검단, 김포 등 6개 신도시지역에서의 주택공급물량이 당초 27만2천가구에서 34만~ 38만6천가구로 늘어난다.

내년초 발표될 분당급 신도시 계획과 기존 공급계획 등을 모두 더하면 향후 5년내 수도권 신도시에서만 55만가구가 쏟아지는 셈이다.

정부는 또 최근 집값 급등의 빌미를 제공했던 공공기관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지구내 주택에도 내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중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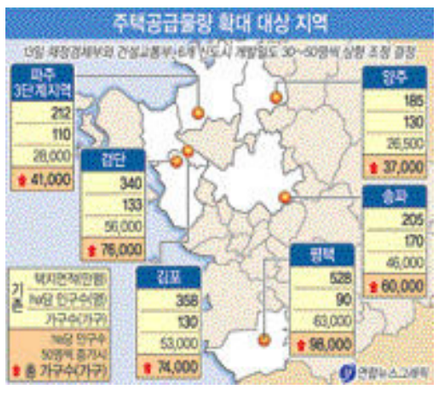
정부는 우선 분당(ha당 197명), 평촌(329명)에 비해 개발밀도가 지나치게 낮은 3기 신도시 지역 중 택지공급 이전단계인 송파(170명), 김포(130명), 양주(130명), 평택(90명), 검단(133명), 파주 3단계(110명) 지역 등 6곳의 밀도를 ha당 30-50명씩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들 6곳의 현재 계획 주택수가 모두 27만2천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30명 증가시 34만가구, 50명 증가시 38만6천가구로 최대 11만4천가구를 늘릴 수 있다. 특히 송파의 경우 당초 4만6천가구에서 최대 6만가구까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와 건교부가 적정한 개발밀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논의중"이라며 "대강의 가이드라인을 잡은 뒤 도시별로 지자체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변경, 이에 맞게 용적률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내년 이후 공급되는 관교 잔여물량 1만1천가구와 파주 1, 2단계 4만4천가구, 수원 광교 2만4천가구, 내년 초 발표될 분당급 신도시 8만가구(추정)분까지 모두 포함하면 향후 5년내 54만5천가구의 물량이 단계적으로 공급되는 것이어서 향후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단지 가운데 시가지에 연접한 지구의 용적률을 160% 이하에서 서울시 수준(190%)으로 상향하고 층고를 높여 공급 주택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인하 노력의 일환으로 특례지역인 경제자유구역과 공공이 땅을 수용해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연내 관련제도를 정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근시세보다 평당 300만 ~ 400만원 비싸게 분양돼 고분양가 논란속에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한 은평뉴타운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청라지구에서 향후 공급될 주택 분양가는 당초 평당 1천만원대에서 800만원대나 그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가 됐던 은평뉴타운은 사업이 마무리단계여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생명보험 가입액 30대 남성 '최고'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30대 남성의 생명보험 가입액이 약 6천900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2005년말 현재 생명보험 가입자의 1인당 평균 가입액은 남성 4천893만1천원, 여성 4천690만4천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연령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30대가 6천886만7천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40대 6천65만8천원, 20대 5천419만8천원, 50대 3천490만5천원, 10대 2천841만8천원 등의 순이었다.

여성은 30대 6천163만7천원, 20대 5천634만7천원, 40대 5천448만6천원, 50대 3천790만9천원, 10대 2천922만6천원 등의 순으로 컸다.

이처럼 30~40대 남성의 가입액이 큰 것은 주력 경제활동 계층으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체 인구 가운데 남성은 61.3%, 여성은 65.3%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도 30대(남성 72.5%, 여성 88.4%)와 40대(남성 81.5%, 여성 90.7%)의 가입률이 높았다.

생명보험 가입자의 평균 가입 건수는 남성 2.1건, 여성 2.2건이었으며 이중 30대(남성 2.4건, 여성 2.6건)와 40대(남성 2.5건, 여성 2.6건)가 많았다.

생명보험 가입자 가운데 한 건만 가입한 사람의 비율이 47%(1천247만8천명)로 절반 가량 차지했고 이들의 건당 평균 가입액은 2천279만1천원이었다. /연합뉴스

2008년 가스 대란 오나

가스공사장 "천연가스 공급부족"

천연가스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가스수급 불균형에 대한 지적이 나온데 이어 이수호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13일 "2008년은 가스수급조절이 특별히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심스럽게 가스대란 가능성을 언급했다. 산자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물량 부족 규모는 2007년 96만t, 2008년 151만t, 2010년 254만t, 2011년 410만t, 2012년 389만t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가스 공급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최근 2~3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데다 고유가로 발전회사들이 중유 대신 LNG를 사용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스공사 이 사장은 가스공급 부족시기로 2008년을 지목한 배경에 대해 "각국과 체결한 20년짜리 장기 공급계약이 한꺼번에 끝나 재계약을 해야 하는 시점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한국전력 등의 수요전망도 불확실하다"며 발전수요 급증이 공급부족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산자부는 올해 겨울철을 앞두고 가스 공급부족 얘기가 나왔지만 수요를 초과할 정도로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가스수요 전망은 2년마다 내놓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으로 2004년에 마련된 것이라며 2020년까지의 정확한 수급전망은 올해 말이나 돼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산자부는 가스공사 등 전문기관과 함께 올해부터 2020년까지의 가스 수급전망과 대책을 담을 제 8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말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에너지사용을 줄이면서 중기적으로는 비합리적인 전력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저장시설도 증설하되 장기적으로는 오랫동안 미뤄온 가스수급체계 구조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가스산업 구조개편 문제 때문에 물량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 천연가스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업 39% "사내추천제 활용"

인쿠르트, 210곳 조사

채용포털 인크루트가 자사 사이트 회원인 기업 210곳을 대상으로 직원이 추천한 인재를 채용하는 사내추천제를 활용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38.6%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내추천제를 실시하는 이유로 이들 기업은 '검증된 인재를 뽑을 수 있어서(53.1%)', '쉽게 퇴사하지 않기 때문(23.5%)', '채용에 따른 시간·비용이 절감돼서(18.5%)' 등을 꼽았다.

이들 기업은 또 직원이 추천한 인원은 대부분 직무를 통해 알게 된 경우(53.1%)였으며 면접 등을 통해 능력을 검증(66.7%)한 후 추천된 인력을 채용한다고 답했다.

사내추천을 통해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 다른 직원들은 편견없이 대하고 있으며(84%) 이들의 직무성과에 대체로 만족(75%)한다고 사내추천제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들은 밝혔다.

/연합뉴스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과 임직원 등 참석자들이 13일 서울 남영동 본사 사옥에서 60년간 해태제과를 상징해왔던 해태상 교체 제막식을 가진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오른쪽 부터 오유경 어린이, 윤영달 회장, 김성복 작가, 육명희 해태제과 고문

해태상, 61년만에 '미소'

해태제과, 새 해태상 제막

'도약' 자세 갖춘 새 모습

해태제과의 상징물인 해태가 61년 만에 새롭게 태어났다.

해태제과는 13일 오전 남영동 본사 사옥에서 윤영달 회장을 비롯해 본사 및 연구소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바뀐 해태상 제막식을 열었다.

새로운 해태상은 암수 한쌍으로 부리부리한 눈, 커다란 코, 큼직한 발톱, 뾰족한 송곳니로 기존의 척사(斥邪) 이미지를 강조하면서도 입가에 미소를 담아내 더욱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몸통부분은 기존의 복잡한 매화무늬 문양을 과감하게 버리고, 불꽃문양으로 대체해 힘 있고 영험한 상상의 동물 이미지를 반영했으며, 눈동자를 새겨 넣어 총기 있고 영험한 인상이 돋보인다.

또 기존 상에 비해 앞다리를 곧추 세우고 튼튼한 뒷다리 근육이 강조된 모습으로 앉아 있어 안정감 있으면서도 준비된 자세로 높게 도약할 수 있는 모습을 갖췄다고 해태제과는 설명했다.

아울러 암 해태가 목에 방울을 달고 아담하며 온화한 모습이라면 수 해태는 멀리 바라보는 기백이 있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구현했다고 해태제과는 덧붙였다.

해태는 1945년 해태제과 설립시 회사 상징으로 등장한 뒤 1967년 이후 김포공항 진입도로 및 시도 경계 표시물로 사용됐고 1975년에는 국회의사당 정면에 신축 기념물로 설치되면서 그동안 국민에게 친숙한 상상속의 동물로 여겨져왔다.

새로운 해태상은 석조 전문 조각가 한진섭씨가 제작을 맡았으며 본사 정문 좌우 양쪽에 설치된다.

/연합뉴스

삼성·LG전자 한류 덕분에 홍콩서 일본브랜드 제쳤다

일본 업체가 장악한 채 좀처럼 뚫리지 않던 홍콩 전자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류를 등에 업고 일본 브랜드를 제쳤다.

홍콩은 전 세계 브랜드가 각종 신기술과 신제품으로 각축을 벌이는 테스트 시장이자 중국 및 동남아시장의 윈도 마켓으로 세계 가전제품의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 역할을 하는 곳이다.

13일 현지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에서 드라마 대장금으로 한류 바람이 크게 일고 이에 맞춰 한국 기업들이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한국기업의 위상과 인지도, 판매고가 덩달아 높아졌다.

두 한국기업의 활약은 전자제품의 간판격이라 할 수 있는 TV에서 두드러진다.

삼성 LCD TV는 8월 말 현재 홍콩에서 시장점유율을 금액 기준 20.3%, 물량 기준 14.4%로 끌어올리며 홍콩에서 처음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소니와 샤프 등 일본 브랜드가 각각 20%대의 점유율로 홍콩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삼성은 1월 9.1%(금액), 5.8%(물량)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상승시키며 마침내 시장 1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7월에야 현지법인을 출범시킨 LG도 홍콩에서 LCD TV 사업에 집중하면서 월드컵 기간인 6, 7월에 26인치, 32인치 모델을 각각 판매 1, 2위 모델로 올리기도 했다. LG전자는 지난해 말엔 청쿵(長江)실업 소유의 호텔에 32인치 LCD TV 3천600대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필립스가 회원사인 홍콩의 네덜란드 상공회의소(DBA)는 LG전자를 올해 홍콩에서 마케팅활동을 가장 잘한 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실질 엔화 가치 21년만에 최저 수준

엔화의 주요국 통화 대비 실질가치가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최근 엔화가치 하락은 일본의 저금리 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엔·유로 환율은 151엔으로 1999년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고, 엔·파운드 환율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캐나다달러 환율도 최근 14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으며 엔·호주달러 환율도 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엔화는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 대비로도 평가절하 추세를 이어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 피해상담 많은 기업 1위 SK텔레콤·2위 KTF

소비자 피해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기업은 SK텔레콤인 것으로 집계됐다.

2위는 KTF, 4위는 LG텔레콤이 차지해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말까지 기업별 소비자피해상담접수 건수를 집계한 결과 SK텔레콤이 4천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F가 2천849건으로 2위, 하나로통신이 2천416건으로 3위, LG텔레콤이 2천92건으로 4위를 각각 차지했다.

5위는 파워콤(1천738건), 6위는 KT(1천462건), 7위는 삼성전자(1천307건), 8위는 G마켓(1천195건), 9위는 두루넷(1천190건), 10위는 팬택 앤 큐리텔(1천135건)이 각각 차지해 통신 관련 회사가 주류를 이뤘다.

이어 11위는 옥션(1천47건), 12위는 현대자동차(1천46건), 13위는 LG전자(977건), 14위는 온세통신(953건), 15위는 기아자동차(762건)가 차지해 자동차 제조회사들도 주요 피해상담 대상이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화인코리아	2006년 하반기 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5	061-330-4520
KBSJOB	[금호생명]광주 콜센터 대표전화 인바운드 상담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1/15	02-518-3250
디자인수	인테리어설계시공 현장관리	초대졸/경력3년	1600~1800	11/17	062-610-5585
신일가스㈜	신규영업, 영업관리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11/18	062-951-0011
승애디자인	IBM 디자이너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11/18	062-525-7955
메리즈㈜	[웨딩분야/여행분야]매니져 및 사원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0	062-222-9111
㈜에스티에스커뮤니케이션	운영직/상담원(I/B,융자TM)[서울,부산,광주]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0	02-2280-3529
(유)특수내장	시공팀,설계팀,인테리어팀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0	062-511-4936
㈜드림랜드	일본 여행사 내근직(O.P)및 가이드(일본어 회화 필수)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20	062-227-4404
㈜빅마트	광주/전남/전북]빅마트 매장관리직 채용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1	062-650-2205
인포드림넷㈜	하나로텔레콤 고객센터 계약직 인바운드 상담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2000~2200	11/22	062-236-0217
㈜윌앤비전	하나로텔레콤 광주고객센터 해약상담직(계약직)	고졸/경력무관	2000~2200	11/22	02-2163-4125
코디세일	웹디자인, C/S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1/22	011-610-4499
국민정보시스템	포스시스템 구축 및 A/S 직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1/25	062-432-2636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전기요금 체납시 신용평가 불이익

전기요금을 체납할 경우 이를 금융기관 등의 개인신용평가와 연계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업자원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20일부터 단전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 전기공급량을 기존의 110W에서 220W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전기공급량 확대로 전기요금 체납가구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 발생시 이를 금융기관의 개인신용 평가제도와 연계해 징수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이 개인의 신용평가에서 공공요금 납부를 평가요소로 활용하고자 할 때 본인의 동의 아래 전기요금 체납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단전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택의 경우 여름철(7~9월)과 겨울철(12~2월) 단전을 유예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단전하게 될 경우에는 전류제한기를 부착해 최소한의 전기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